

변창흠 장관, “새만금, 저탄소 그린 뉴딜 중심지로” 강조

- 24일 새만금 현장 찾아 태양광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점검

-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4일(수) 새만금 사업지역을 방문하여 새만금개발청 및 새만금개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.
 - 이번 방문은 지난해 착공한 재생에너지 사업 및 스마트그린 산단, 공공주도 매립사업인 수변도시 등 그린뉴딜 관련 사업을 연내 본격화*하기에 앞서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.
 - * 수상태양광 착공, 스마트그린산단 기본계획 수립, 수변도시 탄소중립 계획 마련 등
- 이날 변 장관은 “지난 '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을 선포한 이후 새만금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, 새만금이 하루 속히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한층 더 가속화할 때”라고 강조하면서,
 - 특히, “새만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으로, 이를 활용한 스마트 그린산단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수변도시를 조성하여 새만금을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조속히 육성해 나가야 할 것”임을 당부하였다.
- 아울러, “오늘 새만금위원회*(국무총리 주재)에서 심의된 새만금 기본 계획 변경**(안)에 따라, 공공이 개발을 선도하여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”을 강조하였다.

* (일시) 2.24(수) 오후 / (장소) 전북도청

(구성) 공동위원장(국무총리, 소순열 전북대교수), 국토부 장관 등 정부위원(13명), 민간위원(13명)

** (주요내용) ① 청정·녹색에너지 등 전략목표 설정 ② 사업완료시기 명시('50년) 및 10년 단위 개발로드맵 마련, ③ 필수기반시설(새만금 내 연결도로 등) 공공지원방안 마련 등

2021. 2. 24.

국토교통부 대변인